

## <청렴한 물방울 하나가>

마른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향긋하게 퍼지는 핸드폰 벨소리…띠리링 띠리링.  
내 손가락은 마치 흰 나비가 꽃에 살포시 내려앉듯 휴대폰 잠금화면에 다가가 가볍게 터치한다. 풍당. 탈각.

“네 안녕하세요. 럭키중국어한자교실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여보세요, 거기 중국어 학원이죠?”

나는 중국어학원을 운영하며 매일 소소하지만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끽하고 있는 자칭 해피 바이러스 중국어 선생님이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중국어로 이야기 나눌까 늘 소중한 인연에 설레는 하루를 보낸다. 그런데 최근 나를 고민에 빠지게 한 일이 있었다.

어느 날 한 중년 여인으로부터 중국어 수강 상담을 요청하는 연락이 왔다. 자신의 남편이 중국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서 온 가족이 급히 중국을 가야 할 형편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중국어를 급히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 회사에서 어학수강비도 지원해준다고기에 마음만 먹으면 출국 전까지 초급 중국어는 마스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당연히 오케이였다.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 더 생긴다는 사실에 하염없이 기뻐다. 나는 그 날 소중한 인연을 만났다는 기쁨에 어린아이처럼 한껏 들떠 있었다.

상담일 아침에 산뜻한 옷으로 갈아입고 평소보다 더 정갈한 모습으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찾아와 얼굴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는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고 이렇게 우리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던진 말 한 마디가 나를 적잖이 당혹스럽게 했다.

“선생님, 저기……. 혹시 수업을 하지 않고, 영수증만 발행해주실 있나요? 수수료 드릴게요.”

“네?……그게…….”

내 귀를 의심했다. 처음에는 ‘당연히 안 되지!’ 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천진난만하게 생글생글 미소를 띠며 말하는 그녀를 보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이걸 해줘야하나 말아야하나.’

‘그냥 해줄까? 안 해주면 괜히 또 꼴끄럽고, 거 참 난처하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사용하겠다는 그녀. 하지만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온전히 주어진 권한만을 이용해서 불로소득을 취득하는 것은 엄연히 부당 거래라고 생각하는 나. 진리는 단순하다. 그래서 부탁을 거절하면 될 것을 난 또 마음이 약해져 그녀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평소에 내가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은 웬만하면 해주자는 주의였기에 원칙을 떠나 인간적인 측면으로 매우 고민하고 있었다. 원칙이나 편법이나의 기로에서 마치 악마의 손이 내 마음을 혹 비집고 들어와 귓가에서 달콤하게 속삭이는 것 같았고 유혹하는 것 같았다.

‘굴러들어온 복이잖아. 뭐 어때. 일도 안하고 쉽게 돈 버는 건데. 아무도 몰라. 좋은 게 좋은 거지 연주야.’ 이렇게 말이다.

마음속의 이 나쁜 악마. 좋은 게 좋은 거면, 나쁜 건 나쁜 거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때 이 악마의 제안을 거절하길 정말 잘했다. 찝찝해서 두고두고 땅을 치고 후회했을 지도 모르니 말이다. 자칫 나도 모르게 긍정의 신호를 보낼 뻔 했었다. 하지만 순간 번뜩 정신을 차렸다. 불현듯 무언가가 내 머릿속을 차갑게 스치고 지나갔다. 사회의 부패가 어찌면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나타나 쌓이고 쌓여 사회를 점점 병들게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물론 스스로에게 오명을 남기고 싶지도 않았거니와 가짜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곳으로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았다. 편법은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다시 넷이 되기 마련이었기에 경계해야했다. 그래서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했다.

“원하시는 대로 도와 드리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업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발행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에게 왠지 모를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양심 상 그녀의 요청을 들어줄

수는 없었기에 예의를 갖춰 거절했고, 그녀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차분히 발걸음을 돌려 문 밖을 나섰다. 그리고 그 이후로 캄캄무소식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충분히 공부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중국어 공부는 안중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기이하게도 그 뒤로도 몇 명이 더 찾아와 일명 “가짜 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부탁했다. 와서는 ‘서로 좋은 게 좋은 것 아닌가’라는 회유로 부탁인 듯 부탁 아닌 부탁을 했다. ‘그대는 그렇게 돈을 버시는 게 좋으신가요?’라고 따져 묻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기엔 지나치게 예의 없지 않나. 매번 바른 소리라는 이유로 다 큰 어른을 훈계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때마다 정중히 거절해서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자본력이 막강한 대기업이라지만 회사의 공금을 야금야금 빼먹는 게 가당키나 하단 말인가. 그리 돈을 번들 무슨 의미가 있나. 범죄나 매한가지 아닐까.

우리 의식 속에 은연중에 도덕적 해이와 무사안일주의가 스며들어있나 생각해 본다. 이런 병폐가 깊어지면 2014년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온 세월호 참사처럼 언젠가 온 국민이 또 다시 깊은 슬픔에 잠길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와 내가 속한 이 사회를 위해 각자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사회악이라는 것은 어찌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치 채지 못하게 매우 평범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련다.

나처럼 일개 시민도 소위 “win-win”이라는 청탁을 받으면 난처할진대 거액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정부기관 관계자나 공무원의 경우는 오죽할까 싶다. 어차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청탁을 받은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매우 민망하다.

사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본질적으로 닮은 이런 유형의 문제를 우리 주변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로 위를 살펴보자. CCTV를 피해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을 하는 자, 단속을 피해 과속이나 음주운전을 하는 자, 양체처럼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무리한 추월을 하는 자들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비양심의 흔적은 흔히 보인다. 그냥 못 본 체하거나 눈 감아 주고 동조하고는 있지 않은지 기억을 떠올려보게 된다. 멀리보지 않고 내 마음을 정직하게 조용히 들여

다보면 나 또한 달콤한 현실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사회악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고 성찰해본다.

어찌하였건 양심의 가책을 속여가면서까지 공돈을 벌지 않은 나에게 스스로를 토닥여본다. 처음이 어렵지 두어 차례 거절을 하고나니 스스로 신념이 확고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제 아무리 도깨비 할아버지가 나와 봐라. 이 마음 변치 않으리라 씩씩하게 다짐해본다.

3년 전 처음 중국어 학습공간의 문을 열며 스스로 다짐한 것이 있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공명정대하게 운영해나가자는 마음이었다. 더불어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자진해서 시작한 일이니만큼 초심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키자는 것이 행정운영의 주된 모토이다.

주 수입원인 수강료의 100%를 현금 영수증으로 발행하여 국세청에 투명하게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어느 수강생은 영수증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쿨하게 손을 휘휘 내젓는다. 나는 초심의 신념을 떠올리며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말한다.

“저희는 의무적으로 100% 신고하고 있어요. 현금영수증을 받아주세요” 라고.

물론 나도 편법으로 소득을 일부 누락하면 세금을 덜 낼 것이다. 당사자 둘만 침묵한다면 알 사람도 없다. 그러나 그런들 얼마나 부자가 될 것이며, 옷 한 벌 밥 한 그릇 더 먹는 것이 내 양심만할까. 차라리 그 값으로 내 양심과 국가에 대한 의무감을 지키겠다고 마음먹는다.

내가 평소 기분전환 겸 산책하는 호수 공원, 내가 아프면 찾아가는 병원, 나의 생각아지트인 집 근처 공공도서관처럼 여기저기 나 혼자 힘으로는 사유할 수 없는 공공재에 내가 낸 세금이 뜻있게 사용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노라면 가슴 한편이 괜스레 뿌듯하고 기꺼이 세금을 더 내고 싶어지기까지 한다.

여태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절감한 깨달음 중의 하나는 바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개인의 행복 위에 더 나아가 가족, 옆 집, 친구들과도 더불어 잘 살아야 진정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만일 불의와 타협하면 내 가족의 도덕성과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훼손하고,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그 만큼 후퇴한다. 결국 제 얼굴에 먹칠하는 꼴이며 이는 언젠가 다시 부패랑이 되어 나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지도 모를 것이다.

누군가는 나의 양심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작년 2016년 겨울 광화문 광장의 촛불을 생각하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다. 우리 속담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 했다. 촛불 집회에 나가기 전에는 나 하나 참여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곤 했었다. 그러나 한 순간 다 같이 외치는 “박근혜는 퇴진하라!” 라는 구호는 한 숨 한 숨 모여 저 멀리 인왕산에 메아리쳐 다시 내 가슴에 부딪혀 울리었다. 그리고 끝끝내 촛불혁명을 이루어내었다.

이렇게 맑은 물방울 하나가 모여 두 개가 되고 또 세 개가 되어 맑은 강물을 이루고 이 맑은 강물이 또 다시 모여 푸르른 바다를 이루듯, 나의 힘은 비록 작고 눈에 띄지 않는 한 방울일 지라도 그것이 1급수처럼 투명한 정신과 동백꽃처럼 향기로운 양심을 머금은 것이라면 세월이 흘러 강산이 변해도 어딘가에서 분명 긍정의 나비효과를 일으키리라 믿는다.

이 땅에 이런 마음을 가진 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나라는 더욱 맑고 깨끗하여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며, 우리는 후손들에게 떳떳한 조상이 될 것이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이 마음 변치말자. 그래서 나는 오늘도 신규 수강생에게 적극적으로 말한다.

“저희는 현금 영수증을 100% 의무 발행합니다.” 라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투명하고 더 향기로운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하며 이 글을 마친다.